

‘9인 9색’ 보통사람들의 자서전 출판

장흥노인복지관, ‘사진으로 엮는 자서전쓰기’ 출판기념회
전남도 공모 지원사업...올해 3월부터 17회 수업통해 만들어



지난 10월30일 장흥군노인복지관에서 ‘사진으로 엮는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사진으로 엮는 자서전 쓰기’는 2019년 전라남도 공모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올해 3월부터 17회 수업을 수강하며 그동안 써왔던 삶의 이야기와 사진을 엮어 자서전으로 만

들었다. 이날 행사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손수 만든 자서전을 소개하는 출판 기념회로 진행됐다. 자서전의 저자인 수강생들의 사인회로 시작한 1부 행사는 노인복지관 하모니카 동호회의 축하공연과 자서전 낭독 시간으로 이어졌다. 2부 기념식은 자서전 저자 대표 김수환 씨의 기념사와 축하, 황희영 강사의 자서전 제작 경과보고, 사인북 전달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수환 대표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서전쓰기를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완성하게 되어 보람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 쓰기를 도전하고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순 군수는 “어르신들이 진솔하게 살아온 나날을 함께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희망 수호천사단 대표 김광현 목사 담양군복지재단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희망 수호천사단 김광현 대표(봉산교회 목사)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담양군복지재단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광현 대표는 매년 우리 주변의 힘든 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담양군복지재단에 600만 원을 기탁하며 사랑을 전하고 있다. 김광현 희망 수호천사단 대표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성남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기부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담양군복지재단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따뜻하게 섬기기 위하여 2019년 11월 30일까지 4천만원을 목표로 군민, 기업체,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합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합모금 관련 문의사항은 담양군복지재단(☎061-383-8296)으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애청소년에게 ICT 꿈 키운다

SKT, 21번째 ICT 메이커톤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으로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9 SK텔레콤 장애청소년 정보통신기술(ICT)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는 SK텔레콤이 매년 장애청소년들의 ICT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그간 PC 및 스마트폰 기반 정보 검색, 레이싱 카(Racing Car) 조립 및 경주 등 ICT 기술의 트렌드에 맞춰 경쟁 분야가 달라져 왔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5G와



인공지능 등 변화된 ICT 환경과 코딩이 강화되는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해 알버트에 기반한 코딩 종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 메이커톤에는 전국 특수학교 30개팀, 112명이 참가해 레이싱·푸싱 스마트카 경기와 코딩·조종 알버트 경기 등 총 5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서울=김윤호 기자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성료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10월 28일 광주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성료했다. 사회복지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재단이 2017년부터 우리

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주도적 학습의지 고양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같이하는 가치, 성장을 향해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지난 3월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8개동아리 90여명(60개 기관)을 선정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분야별 학습동아리 운영을 꾸준히 지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그동안 사회복지학습동아리사업에 참여한 8개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아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AHO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